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만원릴레이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립인천대학교가 이를 승화시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만원릴레이 기부를 시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 032-835-8080

INU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대학교소식지 2018 봄호 VOL.77

Education

청춘을 리드하다

정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우리대학 청춘들의 내일을 위한 길을 개척하다.

INU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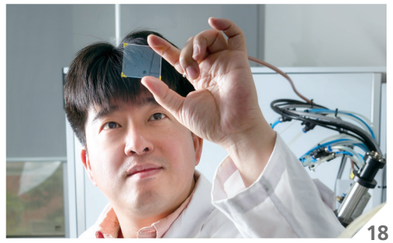
2018 Spring / vol.77

QR 코드를 통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4

10

14


18

22

24

INU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GAZINE

2018 SPRING

VOL.77

ISSUE & INU

04 **Portfolio by INU** 인천대학교, 교육거점대학을 향해
– 과학영재교육원, 1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사범대학, 2018년도 임용시험 정원 대비 36.4% 합격
– 복수학위제도 운영

10 **Hot Issue** 세계와 인천대학교를 잇는 국제교류원

14 **Global** 글로벌 언어교육의 산실, 인천대학교 글로벌어학원

ACTIVE & INU

18 **Focus.1** ‘초超성능 투명 광센서’를 선보이다

20 **Focus.2** 대학일자리센터사업 2년 연속 우수평가 ‘인천지역유일’

22 **Spotlight** 열정의 발걸음, 세계로 이어지다

24 **Club** 우리는 정상을 향해 날아오른다

26 **Sketch** ‘같이 드실래요?’
– 도시락 & TALK
– 십시일밥

WITH I&U

30 **행복 나누기** 같이 가는 만원의 가치, 만원릴레이

32 **INU News**

36 **발전기금 소식**

37 **발전기금 현황**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8년 봄호 통권 제77호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www. inu.ac.kr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INU〉 구독안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Tel 032-835-9241(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E-mail wvpark05@i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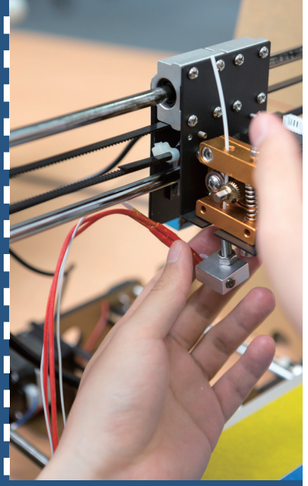
청 춘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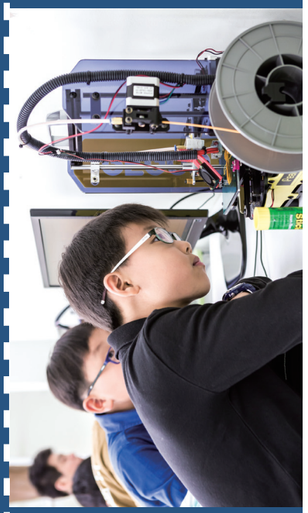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교육거점대학을 향해

리 드 하 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가르침에도 끝이 없지 않을까.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길.
우리대학은 청춘들을 위한 활발한
교육사업이 진행 중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거점대학을 향한
우리대학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정과 희망 가득한 우리대학
교육이야기를 들여다본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주옹





과학영재교육원, 1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이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학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기관(S등급)에 선정됐다. 이것으로 1998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17회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삼위일체'에 있었다. 세 가지가 모여 만든 성과, 그 첫 번째는 사업 진행을 위한 인천지역 기관들의 협조다. 우리대학은 물론이고,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과의 소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원활하다는 점이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교육청과의 협조관계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데, '국립대'란 장점을 통해 사업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했다. 사업의 원활은 학생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우리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우리대학은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지정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육원이 자리한 이 공간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최적의 시설을 자랑한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인적 구성이다.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이기에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관련 노하우와 열의가 필수다.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경력은 20여 년의 세월이 녹아 있으며, 새롭게 참여하는 교수들도 이러한 선배 교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과학영재교육원장 박인호 교수의 운영 철학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사업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체 개발 중인 코칭과 조력 중심의 'F&C-I&D교육 방법'과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설 메이커 공간인 '사이언스 러닝 파크' 사업이 바로 그 핵심이다. F&C-I&D 교육 방법은 교수(교사) 주도의 교육을 학생 주도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토의·토론 방법, 브레인 스토밍과 아이디어 정리법 등의 기초적인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

사이언스 러닝 파크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다. 넓은 공간에 채워진 연구와 관련 장비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3D 프린터는 물론, 레이저 커터, 목공장비, 프라모델 조립 장비와 같은 실험 장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연구하는 과학 체험 활동이 더해져 한걸음 더 과학과 가까워진다.

이제, 과학영재교육원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갯짓을 하려한다. 이곳을 거쳐, 자라난 과학 꿈나무들이 우리나라의 밝은 내일을 그리는 그날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뜻을 지닌 '오픈레더' 공간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운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들은 실험과 토론을 통해 과학과 더욱 가까워진다.

사범대학 이시자 학장

사범대학, 성공적인 합격률의 비결

사범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 2018년 공립 유치원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입학정원(118명) 대비 36.4%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일천한 역사에도 우리대학 사범대가 이러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대학 사범대에서는 전공 및 교직 교육과정을 현장 친화적으로 재구성해 운영한다. 사범대 학생에게는 현장실습이 중요한데, 현재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에 4주간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실습기간이 짧다. 때문에 사범대에서는 학과별로 〈현장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해 30시간을 학교현장에서 참관실습 및 다양한 학교 현장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직 교육과정 중 사범대 특성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해외교육 봉사분야를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한 국제교육지도사 자격과정에도 해외교육봉사에 관심 있는 사범대 학생들이 수강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공헌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대학본부의 지원과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학본부는 2013년 8월, 제물포캠퍼스에서 미추홀캠퍼스로 사범대학을 이전함으로써 교수와 학생을 한 곳에 집결시켰다. 이어, 우수한 교원확보를 적극 지원했다. 사범대학 출범 당시 8개 학과 교원이 총 18명이었지만, 현재 교원은 32명이다. 임용고사가 보통 4개 전공영역으로 구분되므로 각 학과별로 최소 4명의 교수 충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정을 대학본부에서 적극 이해하고 교수들을 충원한 것이다.

끝으로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사범대학과 학과 차원의 다양한 행사 및 임용고사 준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실적 및 성과가 나왔다. 이러한 예산지원은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2016)에서 우리대학 사범대학이 최우수 등급(A)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학을 넘어 지역으로

현재 사범대학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공헌활동도 진행 중이다. 2017년에는 '인천 원도심 교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인천 교육균형발전방안 수립 및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올해 3월에는 선학중학교와 교육협력을 체결해 학습지도 및 동아리 지도 등에 적극 협력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사범대학생들의 학교현장역량을 다졌다. 더 나아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라 학과별로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교현장에 적용중이다.

앞으로도 사범대학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임혜령 학생
(유아교육과 3학년)

저희 사범대학 교수님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무슨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곁에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죠. 이러한 교수님들의 모습에 저희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범대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을 프로그램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고 있어요. 이것은 훌륭한 교직자가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ducation Issue

2개 대학 학위를 동시에 인천대, 복수학위제도 운영

올해부터 인천대를 중심으로 경인지역 32개 대학들이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수학위제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개별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우위에 있는 학과를 개방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경쟁력 확보 및 시너지 효과 얻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에서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운영 방안을 회원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복수학위제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소속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의 이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학하며,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수학하게 된다.

복수학위제란?

소속 대학과 복수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일류를 향해, 세상과 교류하다

세계와 인천대학교를 잇는 국제교류원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우리대학의 핵심 화두다. 국제교류원은 동북아 중심대학을 향한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학생들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원은 오늘도 외국 우수대학과 학술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덕재, 국제교류원 제공

국제교류원, 우리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다

우리대학은 동북아 중심대학을 목표로 특성화사업 및 국제교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교육부지정 물류, 중국통상 등의 특성화사업에 선정, 현재 41개국 200여 개 외국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의 중심엔 국제교류원(이하 교류원)이 있었다. 외국대학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가져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류원의 노력이, 우리대학을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된 것이다.

현재, 교류원은 외국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언어실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역사가 빚어낸 유대감

우리대학 교류원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오랜 역사는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제교류원장 채드 교수는 “우리대학과 외국대학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준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라며, 역사가 낳은 유대감과 이것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때문에 우리대학 교류원은 외국대학과의 끈끈한 유대감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우리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짝을 이뤄 다니는 ‘버디’, 재학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교환학생’,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 단기간 내에 문화와 언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단기연수’, 재학생과 유학생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국제학생회’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한 더 큰 꿈을 키운다.

셰이크 사우드 RAK 통치자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통해 우리대학의 국제적 권위는 한 번 더 높아졌다.

교류, ‘유치’가 아닌, ‘가치’를 담아

교류원은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가치가 담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쓴다. 그렇기에 운영 프로그램은 발전을 거듭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이어니어(pionner)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스스로 해외기업의 인턴 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학교에서 면밀히 평가해 지원금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남들과는 다른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다. 작년 이 제도를 통해 해외에 나간 학생들은 전체 해외인턴의 15% 정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교류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40%로 확대됐다. 이러한 파이어니어 인턴제도의 활성화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에 미국, 호주, 중국 등 특정 국가로 한정돼 있던 해외인턴 파견국가가 올해는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인턴 자리를 찾다보니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장보고 해외인턴 프로그램’도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대학과의 어학연수와 인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보고 인턴 참여 학생들이, 기간 종료 후 중국 현지기업 취업에 성공하거나 국내 기업 중국 관련 직무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치’가 아닌, ‘가치’가 담긴 교류원의 상호 교류가 다른 외국대학과의 진지한 학술교류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진정한 세계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국제교류원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

노력과 열정, 빛을 발하다

셰이크 사우드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 명예박사학위 수여

국제교류원의 활발한 교류활동은 얼마 전, 우리대학의 국제적 권위를 한 번 더 드높였다. 바로 셰이크 사우드 RAK 통치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셰이크 사우드 RAK 통치자는 2010년부터 라스 알 카이마를 통치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라스 알 카이마를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유치국가로 성장시킨 지도자로 꼽힌다. 특히 국민 교육수준을 크게 높인 그는 최근, 제조업, 무역업, 관광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조동성 총장은 “셰이크 사우드 통치자는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라며, “이번 명예박사학위수여를 계기로 인천대와 라스 알 카이마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셰이크 사우드 통치자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인천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인천대와 라스 알 카이마, 나아가 한국과 UAE간에 더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nfo box

세계 최초, 국제교육지도사 과정 추진

우리대학이 전 세계 최초로 국제교육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 인천대 국제교육지도사교육센터(CIEL)에서 운영중인 이 과정은 해외(개발도상국)에 진출해 해외 봉사 및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검정하는 등록 민간 자격이다.

자격증 종류

- **국제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국제교육지도사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1학기 240시간의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때 받을 수 있다.
- **국제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 :** 국제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받은 후, 국제 교육 개발 협력 분야 실무 경력을 입증하면 1급으로 갱신할 수 있다.

교육방법

국제교육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은 한 학기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 수업 40%, 이러닝 60%로 구성된다. 이수 시간의 80%를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한 경우,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이 발급하는 이수 증서를 받게된다.

글로벌 언어교육의 산실, 인천대학교 글로벌어학원

글로벌어학원 출범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대학의 역량과 결단이 담긴 결과물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힘찬 동력이 될 글로벌어학원의 청사진을 이곳에 그려본다.

함께 모여 서로 돕는다

지난 3월, 우리대학은 글로벌어학원을 출범하고 글로벌 언어교육의 산실로 나아가기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졌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학당, 재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육하는 외국어교육센터,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 공자아카데미, 3개의 외국어 교육 기관을 글로벌어학원(GLI:Global Language Institute)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시대를 향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의 산실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가기로 했다.

글로벌어학원 출범의 핵심 키워드는 '호상방주(互相邦助)'. 즉, 언어는 상호교류가 중심이 돼야 배우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조동성 총장의 철학이 담겼다. 각각 산재돼 있던 외국어 교육 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과 교류를 원활히 해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대학구성원과 300만 인천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

글로벌어학원의 출범은 우리대학의 성장 역사와 필연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우리대학은 국립대학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과정 속에는 300만 인천 시민과 대학구성원이 모아준 힘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인천을 넘어 세계를 향해가는 우리대학은 지역사회를 향한 보답의 일환으로 글로벌화에 발맞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특구인 만큼 세계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 글로벌 도시다. 다양한 외국어 수요가 파생되고 그에 걸맞은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소양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어학원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총 9개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대학구성원 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장인의 편의를 고려해 주 7일 상시 강좌가 진행되며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이후까지 강좌가 배정돼 있다.

edit — 김성호 photo — 이주용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시민을 위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시민들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소수 언어까지도 어학과정을 개설해 시민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외국어

글로벌어학원의 핵심 철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다. 기존의 상투적인 외국어 교육이 아닌 실제로 수강생에게 필요한 진짜 외국어를 교육한다. 실사구시의 철학은 글로벌어학원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들어 있다. 일반 회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어권별 특화된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어, 작문, 회화, 문법 등 세분화된 강좌로 수강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전 과정은 입문,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져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지구촌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국가의 수강생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돼 있다. 1:1 멘토 제도 운영으로 한층 더 가까운 언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수강생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강사진 운영 또한 남다르다. 정기적인 면접을 통해 실력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하고, 우리대학 기초교육원의 전임 교수가 직접 수강생의 강의를 진행해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언어교육의 산실

현재 약 700명의 수강생이 글로벌어학원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글로벌어학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지원을 통해 향후 내외국인 수강생 6,0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갖춰놓은 상태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동북아E-biz센터를 포함해 갯벌타워 13~14층을 수강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꾸며 더 많은 인천 시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언어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특화된 어권별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글로벌어학원이 그린 청사진은 구체적이고 선명하다. 양질의 교육을 모두 갖춘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명실상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글로벌어학원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글로벌어학원 집중영어연수〉

- Speak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전분야 레벨테스트 실시하여 반편성 (초급, 중급, 고급 3~5개반)
- 레벨별 10명 내외로 소수정예 / - 전 강좌 인천대학교 어학원 소속 원어민교수 강의
- 프로그램 자체 교재 제작, 배부 / - 실용 중/고급 영어교육과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영어권 문화 습득의 기회
- 강좌 종료일 Presentation 발표회를 통해 우수자 시상 / - 책상머리 영어가 아닌 영어활용시간 극대화 → 영어학습 습관 기르기 기회

세계와 맞닿은 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상준
글로벌어학원장

우리대학은 인천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글로벌어학원의 출범은 인천 시민을 향한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은 물론, 예비 입학생,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강생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이곳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와 맞닿은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다운
글로벌어학원
한국어 강사

언제나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어학원의 출범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던 학생들이 한국어로 안부를 물어오고 질문을 할 때면 더없이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글로벌어학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과 좋은 수업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니에
(이란, 22)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됐어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서툴지만 한국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무척 즐겁고 행복합니다. 특히, 많은 국가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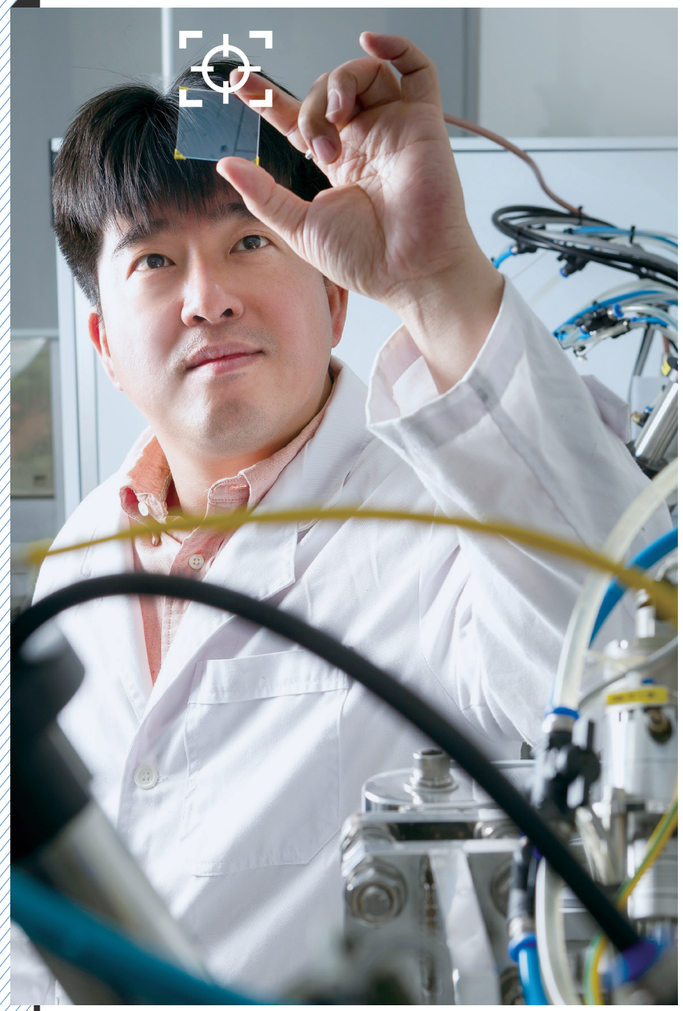
예카테리나
(러시아, 25)

송도국제도시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깨끗하고 세련됐죠.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년 동안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워왔어요. 선생님들의 친절한 강의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을 찾는 러시아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Focus1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超성능 투명 광센서'를 선보이다

전기공학과 김준동 교수팀



최근, 우리대학 전기공학과의 김준동 교수팀(차세대에너지융합연구소)이 '초고속 투명 광센서'를 개발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투명 광센서에 비해 감응속도 및 투과도를 크게 향상시킨 까닭이다. 이로써 초고속 투명 전자 기술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 평가 받는 연구진. 그 수장격인 김준동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Q. 근래 개발하신 초고속 투명 광센서 기술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A. 투명도와 응답 속도 모든 면에 있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광센서입니다. 투명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빛의 빠른 교환반응으로 운용되는 초고속·대용량 광光컴퓨터의 근간 개념이죠. 한마디로 투명도와 응답도가 매우 높고 빠른 차세대형 전자소자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Q. 기존 투명 광센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투명도가 높은 만큼 빛의 투과도가 70% 이상 되고, 입력 신호에 대한 반응도 1백만분의 4초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1천분의 1초로 감응하는 기존 투명 광센서에 비해 장장 1,000배 이상 속도의 향상을 이룩한 것이죠.

edit — 이소영 photo — 이주용

Q. 이와 같이 최고 성능 자랑하는 투명 광센서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A. 흔하게는 자동차나 편의시설 등의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되죠. 평소에는 유리처럼 보이지만 터치하면 정보들이 눈앞으로 드러나는 식입니다. 투명도와 반응도가 높은 만큼 인공안구 및 인공피부 등으로도 이식 가능하리라고 보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사일 추적 시스템, 산중 화염 감지장치, 빛을 통해 연산하는 광光컴퓨터에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Q. 어떻게 초고속 투명 광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됐는지요?

A. 2015년경이었죠. 여러 과로 이루어진 연구모임이라면서 학생 몇이 찾아왔더라고요. 휴대폰에 태양전지 시스템을 접목시킬 수가 있느냐고 물어왔죠. 당시에는 불투명한 태양전지 시스템이 일반적이었던 탓에 '휴대폰에 불투명한 태양전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흡사 자동차에 프로펠러 다는 일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문득 '투명하게 제작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에 저희 연구팀은 빛의 투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명 태양전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제게 영감 줬던 학생들을 수소문했는데 졸업하였는지 끝내 찾질 못하였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연락 주면 좋겠네요(미소). 말하자면, 초고속 투명 광센서 기술은 투명 태양전지 연구에서 파생시킨 결과물입니다.

Q. 연구팀이 개발해낸 투명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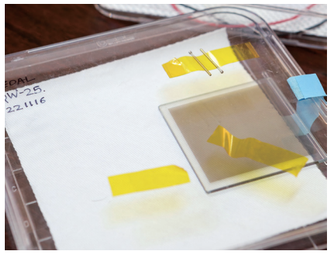
A. 투명 태양전지 연구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의 투명 태양전지 시스템은 빛의 투과율이 80% 이상 되어, 건물 유리 대신 사용하면 빛 에너지의 8%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개념으로 휴대폰의 액정에도 부착 가능하죠. 실제 휴대폰에 적용시킨 결과 5시간 만에 100% 충전됐습니다. 미국 유수 대학에서 개발해낸 투명 태양전지 효율치가 2%인 것을 감안하면 가히 압도적인 수준이죠. 그리하여 이는 현재 국내 굴지 대기업과 연구개발협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우리 학교에선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나요?

A. 장비 및 공간 제공 같은 각종 재원들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연구의 초석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었죠. 아쉽게도 금년에는 연구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지만(웃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Q. 연구팀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올해에는 네이처와 같은 세계 최고 과학매거진에 논문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용화가 목표이죠. 저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다방면에 걸쳐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내 대학일자리센터 실효성 높은 체계로 ── 2년 연속 인천지역 유일 ── '우수' 평가 획득!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의 「2017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평가에서 우리대학 일자리센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 만성적인 취업난에 지쳐 구직마저 포기하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요즘이라 더욱 반갑기만 한 소식인데 . 과연 노하우가 무엇일까 ? 학생들과 울고 웃는 일자리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2년 연속 우수평가, 인천지역 유일 쾌거

지난 3월 우리 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경사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2017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2016년에 이어 다시 우수 등급 타이틀을 따낸 것이었다. 2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성과물을 일구어낸 곳은 인천지역에서 우리대학교가 유일하다. 명실 공히 진로취업 지원 선도대학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과언 아닌 셈이다.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크고 작은 활약상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대학일자리센터. 이쯤 되니 궁금하다.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에 센터 실무진은 가장 먼저 체계적인 '전공진로로드맵 BOOK'을 손꼽았다. 이는 재작년에 만들어진 진로가이드북의 후속편으로서, 학과(전공)별로 진로·직업 탐색기회 및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STAR in U 프로그램 연간일정 안내·CDS(학생경력개발프로그램) 사용방법&활용체계 등이 보다 알차고도 깊이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선배들의 취업사례까지 발표되어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이다.

edit — 이소영 photo — 이주용

학과별·학생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

취업경력개발원이 단독으로 제작하는 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가이드북과는 달리 진로취업관의 교사들이 각 단과대의 전담교수진과 오랜 시간 긴밀하게 교류해온 덕에 가능했던 결실이다. 이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부터 취업 등에 관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학무회의까지 정기 주최, 단과대별 교수진과 수평적·수평적 협력시스템을 완성했다. 여타 대학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양질의 진로 지도를 위해 우리대학일자리센터에선 이밖에도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력을 진단하는 검사시스템을 도입, 올해 처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생특성, 학과특성, 학업여건 등등 카테고리별로 학생들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두면 보다 적확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학생 개개인에 따른 '맞춤 진로컨설팅'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하다 보니,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진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막연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에 부합하는 심도 깊은 상담으로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이 극대화됐다는 것. 실제 센터 이용 후기들을 보면 뿌듯하다 못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며 실무진은 자부심을 내비쳤다.

편안하고 믿음직한 사랑방에 놀러 와요!

자기설계 및 진로설계 교과목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고 찾아가는 진로상담 서비스도 진행하는 상태지만 아직 대학일자리센터를 적극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존재조차 모르거나 안다 해도 어떤 것을 문의해야 할지 몰라 거리감을 갖고 있다. 이에 센터 측은 "학생식당이나 편의점에 들르듯이 부담 없이 놀러 오라!" 신신당부했다. 1학년도 상관없다. 빠를수록 좋다. 전문적인 진로상담부터 세부적인 취업스킬까지, 전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력 덕에 실제 우리대학 취업률은 수도권내 6-7위권, 국·공립대 중에서는 서울대학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2017년도 기준).

한편 우리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고용 거버넌스 또한 운영하여 인천지역 청년들에게도 다채로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익하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로 학생들의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싶다 얘기하는 우리대학일자리센터. 본교 17호관 1층으로 지금 당장 놀러 가자!

Mini Interview

대학일자리센터장
허진

앞으로도 실효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구축하여 우리대학일자리센터의 유익함을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취업진로를 상담하지 않더라도 인생선배 만난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방문하여 주십시오(미소). 대학일자리센터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답니다.

열정의 발걸음, 세계로 이어지다

‘워싱턴 펠로우십 선정’ 아산서원
김한솔 학생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4년간의 대학생활, 이 기간을 활용하기에 따라 대학생들은 꿈꾸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학생들에게 대학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여기 동문의 귀감이 될 만한 재학생이 있다. 누구보다 알차게 대학생활을 즐기는 중어중국학과 12학번 김한솔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막연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는,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었다.

아산서원 제13기에 선정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산서원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산서원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주간 인문교육을 받고 20주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 파견돼 연구조사를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총 40주 과정이에요. 약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인문학과 인턴십을 통해 중국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중국전문가를 꿈꾸는 저로서는 가능하다면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선정되는데 본인만의 장점이 있었던 걸까요?
활발한 토론 활동이 저의 재산입니다. 저는 우리대학교 토론 동아리 ‘세치혀’ 1기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준우승이나 전국대학생 독서토론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토론 대회 수상 실적도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토론으로 갈고닦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면접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중국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저를 표현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부족함도 없었다고 느끼거든요. 지도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네요. 추천서를 써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기에 아산서원에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중국전문가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국내 정치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올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주최한 토론대회에 참여했었는데, 주제가 ‘한국의 통상 정책은 미국 혹은 중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였어요. 중국을 선택한 대다수의 팀은 심사위원인 미국유학파 주류 경제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으며 탈락했죠. 이때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명확한 괴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큰 매력을 느껴 다양한 시각에서 중국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서원을 만나 본인의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산서원을 통해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문학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기회도 얻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참가 자격을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행사들에도 참여할 수 있죠.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25개의 싱크탱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실무를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감각도 쌓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서원 수료 이후 계획과 우리대학 재학생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산서원을 수료하고 우리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해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우리대학과 아산서원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정치를 공부하며, 나아가 세계를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 또한 명확하지 않은 꿈을 정신없이 좇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뛰어나거나 무언가를 많이 이룬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제가 다른 학우들께 조언을 할 자격이 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찾아 열정 어린 노력을 해보세요. 꿈을 향한 길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워싱턴 펠로우십 선정’ 아산서원
제13기 김한솔 학생

edit — 주문수 photo — 이주영

“목표를 찾아 열정 어린
노력을 해보세요. 꿈을 향한
길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는 정상을 향해 날아오른다

최고를 꿈꾸는 인천대학교 체육학과 축구부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팀이 나온다. 우리대학 축구부가 증명하는 말이다. 인천대학교 축구부는 김시석 감독을 다시 만나 기나긴 침체기를 딛고 새로운 날개를 펼쳤다.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김시석 감독이 남다른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까지, 그 과정 속에 녹아있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들여다본다.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인천대학교 축구부, 강팀으로 거듭나다

올해 U리그에서 우리대학의 활약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대학 축구부는 전반기 동안 7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13득점 1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1실점 또한 자책골이므로 사실상 단 한 번도 다른 대학에게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U-23 대표팀에 김정호 선수와 박대한 선수가 선발되는 등, 이제 인천대학교 축구부는 전승으로 권역 우승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전국체전 2연패와 왕중왕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목표들이 비단 꿈에 그치지 않고 가시권에 있을 정도로 2018년의 우리대학 축구부는 유독 빛이 난다.

오늘의 영광 뒤에는 숨은 명장 김시석 감독이 있었다. 우리대학 출신이기도 한 그는 2013년에 인천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다시 부임했다. 2003년, 우리대학을 떠난 지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가 막 다시 부임했을 때의 우리대학 축구부는 옛날 강팀의 위용을 많이 잃은 시기였다. 그랬던 우리대학 축구부를 지금의 강력한 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누구보다도 김시석 감독의 역할이 컸다.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그만의 교육 철학

2013년 재부임 당시, 우리대학 축구부 학생들은 자신감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다. 김시석 감독은 우선적으로 팀의 저하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경기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윽박지르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감독과 선수라는 딱딱한 관계보다는 보다 긴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추구한 것이다. 선수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아이들에게 농담도 하고 여자친구도 소개해 주는 사이가 됐다.

물론 그가 부드럽기만 한 감독은 아니었다. 부조리한 일이 있으면 개혁했으며 꼭 가르쳐야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교육했다. 그는 먼저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후배 간의 군기 문화를 지워냈다. 지킬 것은 지키는 선에서, 선후배 관계가 친한 형 동생처럼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이들"의 인성을 중시했다. 그중에서도 시간 약속만큼은 무조건 지키도록 선수들을 교육했다. 향후 프로생활을 해야 할 선수들에게 시간 약속은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일이며, 약속을 지켜냄으로서 선수의 능력을 넘어 인성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된다고 그는 믿었다. 이러한 김시석 감독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대학 축구부는 감독과 선수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팀이 되었고, 인천대의 상징 '사자'는 날개를 달았다.

강팀을 넘어 최고로

김시석 감독의 교육철학으로 우리대학 축구부는 강팀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회 우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한 것은 경기 내용입니다. 저는 5-3, 4-2처럼 골을 주고받으며 이기는 경기보다, 1-0으로 이기는 경기가 더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탄탄해야 좋은 공격이 가능하다는 그만의 경기 운영방식이다. 때문에 김시석 감독은 단순히 한번 우승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팀을 만들고자 한다.

본인에게 엄격하고, 동료에게 관대한 팀 분위기가 온전히 녹아들 때, 우리대학 축구부는 비로소 대학축구계의 NO.1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도 김시석 감독은 그의 "아이들"보다 많이 뛰고, 더 오래 그라운드를 밟는다. 우리대학 축구부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인천대학교
체육학과 축구부
김시석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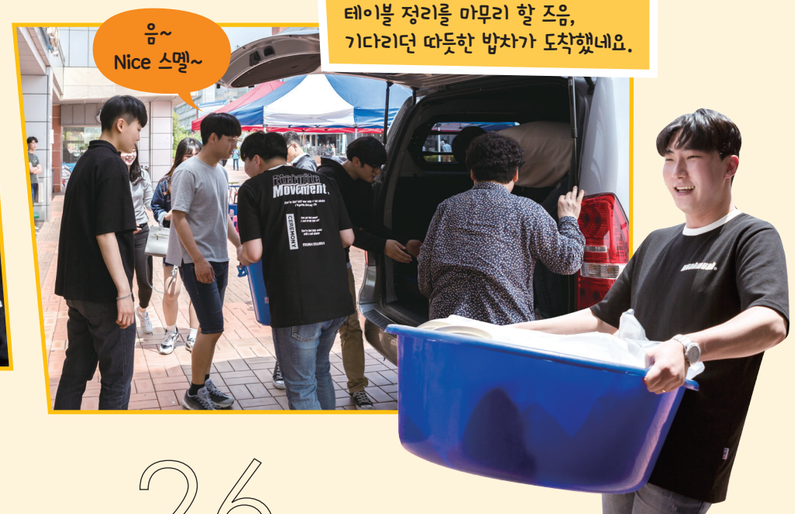
#1 같이 드실래요?

도시락 & TALK

매주 화요일 오후 1시가 되면, 17호관 앞에선 '도시락&TALK'가 열린다. 행사 주관인 총학생회는 이 시간을 통해 학우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한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학우들의 그간 고충을 나눈다. 맛있는 도시락과 서로의 마음이 모여 따스했던 우리대학의 봄날을 소개한다.

화요일 오후 1시.
총학생회는 분주히 움직입니다.

식사 준비의 시작은 청소!



테이블 정리를 마무리 할 즈음,
기다리던 따듯한 밥차가 도착했네요.

도시락 & TALK는 인천지역 교회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회에선 도시락을, 총학생회에선 장소대여와 홍보를 맡고 있죠.

뷔페식으로 진행되며
정말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과 밥을 먹으며 학교에 대한 불편
사항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덕재

#2 같이 드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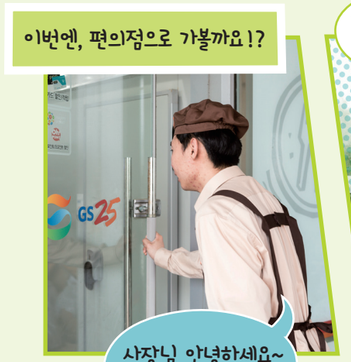
십시일밥

'십시일밥'은 나의 공강 한 시간이 내 친구의 밥 한 끼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 10명이 1시간 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얻은 수익금은 모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것으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버려질 학습시간이 보존돼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다. 때문에 십시일밥 대표 김영진은 학생은 오늘도, 우리대학 곳곳에 따스한 마음을 심고 있었다.

십시일밥은 우리대학 내에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네요.

매장 안 청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 십시일밥은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저의 멋진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하루에 한곳에서만 진행되니 오해는 하지마세요~!

김영진, 오늘도 수고했다!

여러분의 공강 한 시간이, 친구의 밥 한 끼가 됩니다!

How

어떻게 사용되나요?

모금액은 인천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및 인천대학교의 연구·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또한 5년간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인천의 생태 환경을 가꾸는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사업'을 구상하는 등, 인천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이 인천 시민에게 환원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사업'은 기부자의 이름표를 단 왕벚나무를 심어 대학과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주민에게 녹지와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국립대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예정이다.

기부 신청

대표주자 있을 경우 : http://fund.inu.ac.kr 캠페인
→ 만원릴레이 페이지에서 만원릴레이를 추천해준 **대표주자 검색**

약정 방법 선택

온라인 약정 : 온라인 기부 클릭 → 통신사 본인인증 → 약정서 작성 → 약정 완료
오프라인 약정 : 기부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 → 신청
[대외협력홍보팀 방문, 팩스(835-0714), 이메일(fund@inu.ac.kr) 전송]

계좌 입금! 기부 완료!

농협 301-0228-2580-11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으로 입금!
혹은 대외협력홍보팀(대학본부 308호) 으로 직접 납부!

만원릴레이 공유하기!

만원릴레이 페이지 **상단에 카카오톡 이미지를 클릭**하면
친구한테 공유하기 완료!

문의 : ☎ 032-835-8080

What

만원릴레이란 무엇인가요?

같이 가는 만원의 가치

2013년, 인천대학교는 130만 인천시민의 서명으로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전했다. 인천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쾌거였다. 2018년, 우리대학은 새로운 목표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작된 만원릴레이는 인천시민이라는 주춧돌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인천시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이어받아 세계 일류 국립대학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사업, '만원릴레이'를 소개한다.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또 다른 만원으로 이어지는 기부릴레이다. 기부의 문턱을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낮춰 동문과 시민에게 인천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인천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동문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과거 우리대학이 국립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130만의 서명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만원릴레이는 10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원 기부를 통해 인천대학교와 관계를 맺은 이들의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인천대학교의 세계 100대 대학으로 향하는 길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inu.ac.kr)의 만원릴레이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만원릴레이는 약정 시, 대표주자로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대표주자는 지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만원릴레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다음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기부자 100명을 모은 대표주자는 완주자가 되고, 이들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인터뷰를 남기는 등 100만원을 기부한 것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INU NEWS

우리대학 봉사단 20명, 베트남에서 6박 8일간 해외봉사 실시

재학생 및 홍보대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1월 26일(금)부터 2월 2일(금)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껀터 및 호치민 지역에서 봉사활동 및 한국 문화 전파 활동 등을 전개했다. 금번으로 세 번째를 맞이한 베트남 해외봉사 활동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지향하는 인천대가 대학 구성원들의 글로벌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국제 사회 헌신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특화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 봉사단은 껀터대 학생들과 함께 껀터시 고엽제 피해 장애우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경 정비, 장애우 돌봄 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껀터시 고아원을 방문하여 원우들을 위해 문화봉사(K POP 댄스, 한복입기, 부채 만들기 등), 한국 음식체험(김치전),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또한, 껀터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껀터대 학생들 및 지역 방위군, 소방관, 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약 2km의 꽃길을 조성했다.

개교 39주년 및 「미래 40년 준비단」 발족 선언식 개최

우리대학은 개교 39주년(3월 12일)을 맞아 3월 9일(금)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39주년 및 미래 40년 준비단 발족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발전 유공자 표창, 미래40년 준비단 발족 및 선언, 기념 케익 절단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성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대학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40년 뒤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밝혔다.

2년 연속 인천지역 유일 대학일자리센터평가 '우수' 달성

우리대학이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센터 2차년도』사업에서 2년 연속 인천지역 유일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지역사회의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의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청년고용특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특히, 대학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과별 맞춤형 진로가이드북'을 제작 및 활용한 결과, 한국고용정보원『2017년 대학일자리센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높이 평가됐다.

조동성 총장, 모로코 타임즈 고등교육 세미나 기조연설

조동성 총장이 세계 60여개국 대학총장들이 모인 신흥경제정상회의(Emerging Economies Summit) 세미나에서 매트릭스 칼리지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미래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조 총장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191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한 뒤 각 단계별로 필요한 대학의 전략을 소개했다. 1단계 후진국 상황에서는 기업가적 성격의 대학이 필요하고 2단계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문가적 매니저 성격의 대학이, 3단계 중진국에서는 엔지니어형 대학이, 마지막 4단계 선진국에서는 디자이너적 대학의 성격이 각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신흥경제정상회의에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250여 명의 대학총장,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제발전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 교육기관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1995년 순수 민간주도로 제정된 상으로 우리나라 HRD의 발전을 선도해 온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체, 교육기관, 연수원, 교육전문가 등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이다. 주최 측은 "인천대는 HRD 4.0시대에 강조되는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의 강점을 입증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본주의 교육을 실천했기에 수상했다"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와 인재 교육의 변화에 따라 HRD 4.0에 방향성 정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선도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학컨설팅센터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과 관련, 최종 선정 평가 결과 서울·경인·강원 권역의 지원 기관으로 인천대학교 '공학컨설팅센터'가 2년 연속 선정됐다. 본 사업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 등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장 박동삼 교수는 "지난 1년 동안의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학부 박정주 학생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국 최연소 합격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우리대학 박정주(20) 학생이 최연소 합격의 쾌거를 이룩했다. 경영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주 학생은 강민정 세무회계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CPA 고시반에서 수학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해 "전국 최연소 합격자" 타이틀을 얻는 훌륭한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합격자는 총 1702명이다. 오는 6월 30일, 7월 1일에 열리는 제 2차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영학부 2학년
박정주 학생

제11차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는 27일(금) 오후 4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1차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4대 회장에 연임됐다. 3대 회장을 맡았던 조동성 총장은 앞으로 1년 더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이끈다. 임원들의 제청으로 회장직을 연임한 조동성 총장은 "경인지역에 많은 대학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앞으로 1년 간 우리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가장 바람직한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시작 예정인 공동·복수학위제도에 대한 설명과 교육부의 대입제도 국가 교육회의 이송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시건축학부 김용식 교수, 대한건축학회상 수상

지난 4월 25~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2018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건축도시대회 서울"에서 우리대학 김용식 교수가 대한건축학회상(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는 1945년에 설립되어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회원 수 24,790여명을 보유한 우리나라 건축분야 최고·최대의 학회이다. 본 상은 건축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용식 교수는 인천대학교(공학사) 출신으로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학석사 및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우리대학 도시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ELSEVIER사가 발행하는 국제저명 SCI논문집인 Building and Environment로부터 Most Cited Articles 2005 to 2008상, 한국생활환경학회 학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도시건축학부
김용식 교수

[MBN 토요포커스 87회] '대학 혁신의 꿈을 펼치다' 총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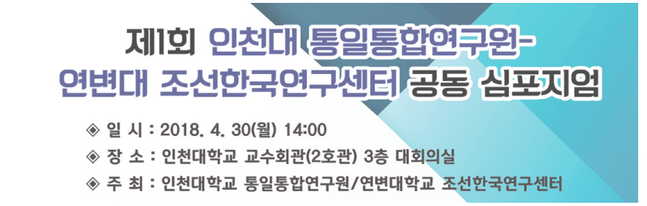
4월 28일 MBN 토요포커스에 출연한 조동성 총장은 대학 교육의 혁신에 대해 인터뷰했다. 스물아홉, 최연소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조동성 총장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ICT 시스템과 첨단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 교수 임용방식 구조 변화 등으로, MBN 인터뷰플러스에서 그가 추구하는 대학 교육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인천공공성발전플랫폼 추진단 발족식

5월 17일, 지역사회의 공공적 이슈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대학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각계 분야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인천공공성발전플랫폼 추진단'(이후 추진단이라고 함)을 발족했다. 이날 추진단(단장 김철홍 산업공학과 교수)은 전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세미나와 지식상점 공유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동성 총장은 김철홍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 12명에 대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천지역의 공공성 있는 현안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출발점이 되어 의미가 깊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축하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리대학이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대학은 지난 해 대비 약 3억원 이상 증가한 총 7억9천3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선정에 있어 우리대학은 대입전형의 간소화, 고른 기회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자격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전형 운영의 공정성, 다양한 중·고교 연계활동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회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구센터」(센터장 박찬규)는 4월 30일(월) '제1회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번 심포지엄이 기존 국내외 통일 관련 연구와 다른 점은 통일 자체보다 통일 전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대에서 정치 경제 등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들 외에 이공계 교수들도 대거 참여함으로써 통일통합연구가 인천대 거의 모든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융합 연구과제가 되는 방식이다.

우리대학「통일통합연구원」박제훈 원장은 "금년 들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개최로 평화와 협력의 기운이 감돌면서 이번 공동 심포지엄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는 중국내에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금년 10월 중에는 연변대에서 제2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매년 정례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연표 정책대학원 총동문회장, 발전기금 3천만원 전달

우리대학 정책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달 3월 29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제19대-제20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정책대학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최고관리자과정과 석사과정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제18, 19대 성기현 총동문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 중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와주신 임원진 및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인천대 및 정책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임하는 제20대 홍연표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천대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고, 여러 동문들과 더불어 활기찬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회장은 발전기금 3000만원을 조동성 총장에게 전달했다.

홍은숙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41대 원우회장,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우리대학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40기 최고관리자과정에 재학 중인 홍은숙(탑 스크린 골프존)대표가 대학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홍은숙 대표는 "이 발전기금을 통하여 후배들이 학업에만 열중하여 더 큰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송다영 정책대학원 원장은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원우회장으로서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십으로 원우회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은 다시 후배들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애교심이 남다른 분이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반대학원 제15기 원우일동,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제15기 황영상 원우회장과 전수현 부장, 윤경숙 부장 및 박수현 과대표를 비롯, 인천대학교 총장, 부총장, 대외교류처장, 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기탁식에서 황영상 원우회장은 1천만원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하였다. 황영상 제15기 원우회장은 "일반대학원 제15기 원우 일동이 국립인천대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조동성 총장은 "제15기 원우 일동이 모은 소중한 마음을 헤아려 대학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대학원 원우회는 총 3,7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대유 탑에이테크놀로지 대표,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인천 남동구 (주)탑에이테크놀로지 김대유 대표이사가 인천대학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에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올 2월 우리대학 정보기술대학원 졸업 예정인 김대유 대표이사는 현재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20기 원우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17년 5월 정보기술대학원 20주년 기념식에서도 발전기금 500만원을 우리대학에 기탁한 바 있다. 1987년 설립된 (주)탑에이테크놀로지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반도체, OVEN 등의 장비 전문 제조업체 회사이다.

인천시체육회, 체육발전지원 기금 2억5천만원 기탁

인천광역시체육회(상임부회장 강인덕)는 4월 5일 인천대를 방문해 학교체육발전기금 2억5천만원을 기탁했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인천대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탁 취지를 전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대학에 애정을 갖고 기탁해 주신 기금을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부현황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홍연표	동문	30,000,000
일반대학원 15기 원우회	단체	10,000,000
장세실/장익희	개인	10,000,000
홍은숙	동문	10,000,000
(주)에스피지	기업	9,000,000
조동성	교원	6,957,200
(주)폴젠코리아/백재경	기업	5,000,000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동문	5,000,000
김준동	교원	3,500,000
드론스쿨(주) 니즈웍스	기업	3,000,000
이금진	교원	3,000,000
서정현	교원	2,010,000
(주)와이티엔	기업	1,548,775
변윤식	교원	1,500,000
빅픽처	기업	1,500,000
(주)백석개발 인천지점/김영수	기업	1,000,000
권형욱	교원	1,000,000
김재훈 /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문순기/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박윤석/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백영권/ 경영대학원MBA34기	동문	1,000,000
서한나 /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신명희/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이주섭	동문	1,000,000
장해선 /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정준교/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정책대학원 제45대 원우회	단체	1,000,000
조해영 / 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하준호/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1,000,000
케이사이트	단체	956,000
박구웅	교원	600,000
배양섭	교원	600,000
곽병선	교원	500,000
조중휘	교원	450,000
박주문	교원	410,000
(주)한마/이정식	기업	400,000
윤용식	직원	310,000
이상동	직원	310,000
(주)진성엔테이순득	기업	300,000
가온종합물류(주)-김삼현	기업	3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곽문선	조교	30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구경헌	교원	300,000
권영산	개인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노영돈	교원	300,000
노창근	동문	300,000
드림오피스 (세연인포)/김승태	기업	300,000
미림전력/김유신	기업	300,000
박종승	교원	3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유정희/(주) JH에너지	기업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병관	동문	300,000
이성욱	동문	30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전성택	교원	300,000
전우용사촌(주)	기업	300,000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조형호	동문	300,000
차기율	교원	300,000
추성호/인성환경	동문	300,000
홍진배	교원	300,000
황기섭	동문	300,000
황민식/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황현배	동문	300,000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기업	283,356
(주)올인원시스템	기업	20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200,000
한창원	동문	200,000
이승열	직원	160,000
임정훈	교원	160,000
임찬옥	직원	16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교흥	동문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환식	직원	150,000
김흥근	동문	150,000
박지선	교원	150,000
설경자	직원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상연	동문	150,000
이종헌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제희태	동문	150,000
조주환	동문	150,000
양하윤	개인	100,000
양하준	개인	100,000
이종열	교원	100,000
한상혁	직원	100,000
홍필기/ 서인천현대모터스 주식회사	기업	100,000
황용	동문	100,00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태성	교원	90,000
박은경	교원	90,000
박진우	교원	90,000
신철호	동문	90,000
안춘순	교원	90,000
우인성	교원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선인	교원	90,000
윤영돈	교원	90,000
이창연	교원	90,000
장인우	교원	90,000
구태환	교원	75,000
박근수	교원	75,000
임일진	교원	75,000
하병훈	교원	75,000
권오중	교원	60,000
박종석	직원	60,000
오복자/ 국제광고(전무홍)	동문	60,000
이준호	직원	60,000
최명종	직원	60,000
동양인쇄사/김문선	기업	50,000
유학봉(조성면)	동문	50,000
고덕봉	직원	40,000
문병수	교원	40,000
이문학	교원	40,000
최재혁	직원	40,000
황미옥	교원	35,000
김경아	조교	30,000
김규원	교원	30,000
김기만	직원	30,000
김윤신	교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지용	교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형기	직원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영돈	교원	3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서진엔지니어링(주)/박규봉	기업	30,000
승일자동차공업/김영욱	기업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유병순	동문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진희	직원	30,000
임태은	교원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장현주	직원	30,000
최민경	조교	30,000
한상길	조교	30,000
한종민	직원	3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허성희	직원	30,000
홍현경	조교	30,000
강용훈	교원	25,000
권기영	교원	25,000
권혁준	교원	25,000
김용민	교원	25,000
김정경	교원	25,000
김정태	교원	25,000
남상욱	교원	25,000
노지승	교원	25,000
박정준	교원	25,000
박진한	교원	25,000
박환희	교원	25,000
송상헌	교원	25,000
송원용	교원	25,000
신용권	교원	25,000
안치영	교원	25,000
오은하	교원	25,000
유혜배	교원	25,000
윤소연	교원	25,000
이건상	교원	25,000
이노은	교원	25,000
이영석	교원	25,000
이용화	교원	25,000
이원경	교원	25,000
이원준	교원	25,000
이지은	교원	25,000
이호상	교원	25,000

발전기금 현황 (2018년 2월 1일 ~ 2018년 4월 30일)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인문대학 친목회	단체	25,000
장정아	교원	25,000
장제형	교원	25,000
전병준	직원	25,000
전신화	교원	25,000
조봉래	교원	25,000
조사옥	교원	25,000
조현우	교원	25,000
조혜영	교원	25,000
주소정	교원	25,000
채숙희	교원	25,000
최윤경	교원	25,000
한상정	교원	25,000
김일남	교원	20,000
윤희랑	동문	15,000
강병수	개인	10,000
강석기	개인	10,000
권미경	동문	10,000
권혁중	개인	10,000
김경집	직원	10,000
김광수 (대외협력홍보팀)	직원	10,000
김광수(시설과)	직원	10,000
김남희	단체	10,000
김명지	단체	10,000
김병일	직원	10,000
김성일	개인	10,000
김영관	교원	10,000
김영균	교원	10,000
김영주	직원	10,000
김은선	직원	10,000
김재득	개인	10,000
김정아	직원	10,000
김종호	직원	10,000
김지호	단체	10,000
김태민	단체	10,000
김현귀	직원	10,000
김홍섭	직원	10,000
김효정	단체	10,000
박광현	동문	10,000
박문주	교원	10,000
박미진	교원	10,000
박보람	단체	10,000
박상민	교원	10,000
박성미	동문	10,000
박승용	직원	10,000
박재윤	교원	10,000
박종도	교원	10,000
박종태	교원	10,000
박창재	동문	10,000
박형의	직원	10,000
박희재	직원	1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반상녀	직원	10,000
배인성	개인	10,000
배진식	단체	10,000
백세기	동문	10,000
백용하	개인	10,000
서은하	동문	10,000
선준	개인	10,000
성미영	교원	10,000
성창훈	교원	10,000
손하연	직원	10,000
송다영	교원	10,000
송인혁	개인	10,000
신상철	개인	10,000
신영수	단체	10,000
신재단	동문	10,000
신화철	직원	10,000
안순길	교원	10,000
안순이	개인	10,000
양동숙	동문	10,000
양운근	교원	10,000
여운호	교원	10,000
오귀영	단체	10,000
옥우석	교원	10,000
왕지원	개인	10,000
유기숙	단체	10,000
윤병조	교원	10,000
이강서	직원	10,000
이근석	직원	10,000
이대원	직원	10,000
이명자	개인	10,000
이민섭	교원	10,000
이민협	개인	10,000
이상구	교원	10,000
이상준	교원	10,000
이상훈	동문	10,000
이상훈(최인순)	개인	10,000
이성훈	개인	10,000
이승경	개인	10,000
이승철	직원	10,000
이시자	교원	10,000
이영배	동문	10,000
이영환	직원	10,000
이유나	직원	10,000
이은화	직원	10,000
이정경	단체	10,000
이정수	직원	10,000
이진경	직원	10,000
이충우	직원	10,000
임종면	개인	10,000
임주영	직원	10,000
임창묵	개인	1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장지혜	개인	10,000
정창기	직원	10,000
조한국	교원	10,000
조현철	개인	10,000
주영범	개인	10,000
주정수	단체	10,000
채희봉	직원	10,000
최성찬	직원	10,000
최성훈	개인	10,000
최영미	조교	10,000
최원	교원	10,000
최인수	직원	10,000
학부모	학부모	10,000
한양호	직원	10,000
한용갑	직원	10,000
함남우	교원	10,000
허진	교원	10,000
홍기용	교원	10,000

우수리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향숙	교원	34,350
오은하	교원	26,940
오혜영	조교	26,570
송상화	교원	25,820
조길수/ 이남영,조규현	직원	25,340
천성철	교원	24,730
김산정	직원	24,270
강승택	교원	24,150
김동호	직원	23,570
정영민	직원	23,450
박재윤	교원	23,270
이진원	교원	23,260
이진섭	직원	23,100
박종돈	교원	23,070
신미옥	직원	23,010
안승범	교원	22,930
오지은	조교	22,930
임정훈	교원	22,830
문은호	직원	22,680
김영주	직원	22,450
안춘순	교원	22,450
김은선	직원	22,290
허성희	직원	22,110
김재곤	교원	22,050
조천순	직원	21,560
김강우	교원	21,480
권정희	직원	21,410
김정아	직원	21,4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유혜경	교원	21,270
박찬진	교원	21,130
신현주	조교	21,050
정경란	직원	20,880
노지승	교원	20,870
박용호	교원	20,840
송현호	교원	20,670
유재란	직원	20,560
박정훈	교원	20,520
안정규	교원	20,500
임병미	직원	20,470
장희경	직원	20,310
한승헌	직원	20,220
민홍기	교원	20,190
박지선	교원	20,140
이시자	교원	20,140
조사옥	교원	20,120
최재웅	직원	20,100
이나영	직원	20,060
곽준경	조교	20,020
황상순	교원	19,750
김영희	교원	19,710
정선영	교원	19,640
김태완	교원	19,470
김기준	교원	19,420
정해준	교원	19,330
채진석	교원	19,320
김진호	교원	19,270
이연희	직원	19,190
김우일	교원	19,140
민금홍	직원	19,080
최인수	직원	19,020
조재인	교원	18,960
강상미	직원	18,930
강하라	교원	18,910
김내현	교원	18,830
신광섭	교원	18,760
이민철	교원	18,730
윤용식	직원	18,710
장서은	직원	18,690
나인강	교원	18,670
김동배	교원	18,660
이병하	교원	18,620
나인수	교원	18,550
신원태	교원	18,500
심형보	교원	18,490
정보람	조교	18,450
이영석	교원	18,390
양승모	조교	18,270
전용재	직원	18,240
최영미	조교	18,220
황미숙	조교	18,15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성연	교원	18,140
김승규	교원	18,130
안효진	교원	18,110
김창우	직원	18,080
권기영	교원	18,000
김광열	직원	17,960
한양호	직원	17,820
김순홍	교원	17,790
박정준	교원	17,790
황명환	교원	17,660
빈상찬	직원	17,600
이황주	직원	17,600
최윤정	직원	17,580
안영효	교원	17,570
강현옥	교원	17,540
이찬식	교원	17,490
최성을	교원	17,480
권혁준	교원	17,320
박재일	직원	17,300
이병학	직원	17,270
구선희	직원	17,260
박문주	교원	17,220
김복영	교원	17,180
신용권	교원	17,120
박지훈	교원	17,110
전동근	교원	17,090
이원종	교원	17,020
이승매(LI CJENG MEI)	교원	16,950
황미옥	교원	16,940
최병길	교원	16,840
김동욱	교원	16,810
이효은	조교	16,800
장진주	직원	16,780
고은희	직원	16,710
최원	교원	16,590
정경찬	직원	16,510
김혜미	교원	16,420
유은정	조교	16,410
정욱경	교원	16,360
양운근	교원	16,230
윤태웅	교원	16,220
임지현	직원	16,180
김형기	직원	16,080
민철기	교원	16,010
조봉래	교원	16,010
주현태	교원	15,920
여기태	교원	15,910
문옥미	직원	15,860
김동규	직원	15,830
이지은	교원	15,680
권정호	교원	15,590
김찬주	교원	15,580
이원경	교원	15,58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전석희	교원	15,540
윤춘화	직원	15,530
장인우	교원	15,510
황병희	교원	15,460
박승진	교원	15,370
황선용	직원	15,250
백종숙	직원	15,120
한상혁	직원	15,120
전동진	조교	15,070
김수현	조교	15,040
전병준	직원	15,030
강상혁	교원	14,980
조혜영	교원	14,870
정종태	교원	14,850
양해숙	직원	14,810
안순길	교원	14,800
이준호	직원	14,800
김관식	직원	14,780
배양섭	교원	14,720
임경환	교원	14,710
한종민	직원	14,710
최은미	교원	14,700
방재한	직원	14,610
박종승	교원	14,580
전지혜	교원	14,530
최재혁	직원	14,450
김준석	교원	14,440
송다영	교원	14,440
박주문	교원	14,420
이진희	직원	14,420
최성욱	교원	14,420
김성희	교원	14,390
정연서/ 신한카드포인트	조교	14,350
홍현숙	직원	14,310
우요섭	교원	14,280
고덕봉	직원	14,040
윤종구	직원	13,970
강치후	조교	13,940
이충우	직원	13,940
최계운	교원	13,940
김재광	교원	13,800
홍선표	교원	13,800
김선호	교원	13,760
황영삼	교원	13,750
장소영	직원	13,720
강연제	직원	13,710
곽문선	조교	13,700
유재은	조교	13,690
김용민	교원	13,680
김진한	교원	13,640
권오미	직원	13,620
이숭열	직원	13,590
이희관	교원	13,45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윤지영	조교	13,390
최성찬	직원	13,390
방동인	직원	13,370
박승준	교원	13,360
조명순	직원	13,330
김순옥	직원	13,200
이건상	교원	13,150
공용득	직원	13,110
이동후	교원	13,060
김광수(B)	직원	13,050
김영철	직원	13,020
박성완	교원	12,990
김경아	조교	12,970
우금순	직원	12,840
이석기	직원	12,800
홍현경	조교	12,800
최형우	직원	12,720
우인성	교원	12,660
박은경	교원	12,610
이윤정	조교	12,570
장현주	직원	12,450
김광수(A)	직원	12,260
강효현	직원	12,200
김형근	직원	12,160
김종호	직원	12,100
조중휘	교원	12,060
정승미	직원	12,050
김윤신	교원	12,030
김응철	교원	11,830
안호선	교원	11,740
윤정아(학술정보과)	직원	11,610
신은기	교원	11,570
이상동	직원	11,520
한상정	교원	11,420
황태진	직원	11,360
김환용	교원	11,320
박상임	직원	11,320
조현우	교원	11,290
여운호	교원	11,260
이종혁	직원	11,260
김현우	직원	11,210
이창길	교원	11,100
이승철	직원	10,960
변윤식	교원	10,710
김학만	교원	10,560
심민석	교원	10,520
최윤희	직원	10,480
이은직	조교	10,400
이병관(조교)	조교	10,290
서종국	교원	10,210
박미선	직원	10,110
이지영	조교	9,680
차기율	교원	9,66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도균	교원	9,650
송원용	교원	9,620
김기만	직원	9,590
김선희	교원	9,540
박정승	직원	9,530
전재철	직원	9,530
최윤경	교원	9,490
김은영	교원	9,440
김정민	직원	9,320
홍기용	교원	9,320
김장균	교원	9,250
홍영진	직원	9,230
서정현	교원	9,160
심인애	직원	8,910
오원선	교원	8,900
이원준	교원	8,850
이영수	교원	8,780
안익태	직원	8,690
이윤	교원	8,670
이운형	교원	8,600
박형의	직원	8,590
배순희	직원	8,350
채숙희	교원	8,310
김평원	교원	8,280
김정업	조교	7,990
홍현표	직원	7,790
경명진	직원	7,690
홍수민	직원	7,650
김수진	교원	7,620
김정기	직원	7,560
손정숙	직원	7,560
박주연	직원	7,510
박인선	교원	7,460
정영식	교원	7,420
은주영	직원	7,310
이선영	조교	7,250
최일용	직원	6,760
윤세원	교원	6,750
김선경	직원	6,720
유종근	교원	6,580
이영애	교원	6,360
박시우	직원	6,040
유혜배	교원	5,880
차지수	조교	5,820
우제대	직원	5,240
김익수	교원	5,190
민문기	직원	5,050
이창연(조교)	조교	3,410
최병심	직원	2,670
박희재	직원	2,520
설경자	직원	2,300
전찬기	교원	440